

시민 참여 수필집 '내 인생의 전주記'

전주문화재단, 15명 대상 마을작가교실 운영... 전주 지역성 강조한 자신만의 이야기 담아

전주 시민들이 직접 집필한 마을작가 수필집이 출간됐다.

지난 18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시민들의 창작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창출을 위해 '내 인생의 전주記'를 발간했다.

이번 수필집은 '2024 전주마을문화자원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작가교실을 운영했다.

특히 지역 스토리텔링의 전문가인 박태건 교수가 강사로 나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박 교수 역시 마을작가로 참여해 수필 집필에 동참했다.

교육 과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0



마을작가 수필집 '내 인생의 전주記'

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수필의 형식과 실질적인 글쓰기 기법을 익히며, 전주의 지역성을 강조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

아냈다.

그 결실로 완성된 '내 인생의 전주記'에는 박태건 교수를 포함한 11명의 마을작가가 참여, 총 18편의 글과 관련 사진이 수록됐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수필집 발간은 시민들이 창작 주체로 나서 지역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는 전주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매품으로 제작된 '내 인생의 전주記'는 오는 21~27일까지 공유화음실(동문길 60)에서 열리는 '동문그림가게' 내 '수필가게'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문화예술단체 '화' 결과발표 공연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 선정 단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화(대표 소하)'가 지난 19일 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3층 공연장에서 '꿈과 미술이 만나 열쭉' 결과발표 공연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 '화'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무용, 국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소하 대표는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주체가 돼 보낸 1년의 시간을 선보이는 자리에 함께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또래 및 가족과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6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예술회관,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2025년 상반기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정기대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대관신청서와 전시(공연)계획서를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mrlvely@jbct.or.kr)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재단 선정심의회 의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결과는 11월 29일 재단 누리집 게시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공연장은 2025년 2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의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전시실은 2025년 2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5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전시실 벽 보수 기간인 5월 2~8일을 제외한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북예술회관 대관 규모는 공연장은 238석이며, 전시실은 기스라1(95평), 기스라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 산마루(23평) 등 총 6개로 구성돼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전북예술회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박람회 '공예로 지:구하자'

한국전통문화전당, 21~22일 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1~22일 양일간 전당 일원에서 제3회 전주공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공예작가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공예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일정에 맞춰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공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와 관련, 전당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손길을 보태며 지구와 공생하는 공예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공예로 지:구하자'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43개 공방에서 준비한 양질의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1,450명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예 문화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일반 공예 체험(35개 공방) △친환경 공예 체험(8개 공방)과, △공예야 놀자 △풍선 타고 날아온 솜사탕 △손으로 공예를 손으로 마술을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과 참여형 공예 놀이가 진행된다.

한편 개막식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전당 야외마당 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전당 공연장 상주단체인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풍물놀이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전주공예박람회는 도내 공예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에 우리 공예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성껏 준비한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퍼레이드 22일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8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통합퍼레이드는 22일 오후 5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체육관까지 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3,000여 명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을 선보이는 단체는 △합굿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전주), △국악예술원 소리피(익산), △남원시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남원),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임실), △포스댄스컴퍼니(부안) 등 5개 수행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다.

통합퍼레이드는 전북자치도만의 특색있는 거

리 이동 공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전주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23~24일 양일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노상놀이야 전주공연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는 전통연희, 취타대, 농악, 기잡놀이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며 "K-문화(한류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섬진강 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순창展' 개최

순창군이 지난 17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순창 공립 섬진강 미술관 전시실에서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순창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해 발굴된 전북의 유망 서예가들과 순창 지역의 내로라하는 서예 명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풍부한 서체와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북 서예 문화의 풍성한 계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 군민들과 방문객들께서 서예의 깊이 있는 매력에 빠져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찾으



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입장은 무료로 자세한 사항은 섬진강 미술관(063-653-2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영웅의 간장 햇살담은 그대에게

